

Sermon Notes:

서론: 애든 어른이든 공평하게 대우 받기를 원함

본론: 포도원 품군의 비유

1. 포도원 주인

- 가. 일꾼을 찾음 (6 시, 9 시, 12 시, 3 시, 5 시)
- 나.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 (노예의 하루 평균 임금)
- 다. 시간에 관계 없이 똑 같이 임금 지급
먼저 들어와서 일한 품군의 불만: 주인은 잘못 없음

2. 본문은 19:27-30 절과 연결됨

- 가, gar (for)로 시작함
- 나. 19:30 절과 20:16 절이 같음

3. 먼저 온 품군의 잘못된 태도

- 가. 이웃을 향한 잘못된 태도:비교의식-> 동역자의식
시기와 질투는 마귀로부터 옴 (약 3:14)
- 나.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
누구라도,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얻음
그렇지만 상급은 다름 (고전 3:8, 눅 6:35, 계 22:12)
하나님의 계산법과 세상 계산법은 다름

4. 바른 헌신의 자세

- 가. 은혜의 빛진 자의 마음
- 나. 청지기의 마음 (눅 17:10)

결론: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학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십시오.

암송구절: 마태복음 20 장 16 절

‘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’

메모:

1. 자신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?
2. 구원을 베푸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가?
3. 복음의 빛진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